

# “지역·국제사회와 교류하며 나눔가치 실현할 것”

## 지스트 대외협력 비전 선포식

과학기술 혜택 가치·모델 개발 30년 역사 속 시민들의 힘 도움 봉사활동 필수... 연구실 개방도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총장 임기철)이 지난해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역·국제사회와 교류하며 나눔의 가치를 약속했다.

지스트는 23일 교내 오통관에서 ‘2024 대외협력(나눔) 비전 선포식’을 열고 “과학기술을 넘어서 소외된 사람없이 모두가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가치와 모델 개발, 일상생활에서 실천, 지역·국제사회에 전파하겠다”고 천명했다.

행사는 임기철 지스트 총장을 비롯해 정용화 지스트 대외부총장, 문인 북구청장, 박주선 지스트발전후원회장, 정준호 광주 북구갑 당선인 등 150명이 참석한 지스트 비전에 공감대를 모았다.

박주선 지스트발전후원회장은 “나눔이라는 비전은 의지와 집념만 있다면 가능하다”며 “나눔을 밝힌 지스트가 제 역할과 사명을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 선포식이 지스트를 품고 있는 이 지역의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과 정용화 대외부총장, 박주선 발전후원회장과 문인 북구청장, 정준호 국회의원 당선자 등이 23일 광주과학기술원 오통관에서 2024년 GIST 대외협력 비전 선포식을 갖고 ‘과학기술에 나눔을 더하다, GIST 지역과 함께 미래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장과 발전, 행복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스트 대외협력 방향을 제시한 정용화 대외부총장은 “지스트가 위치한 첨단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으로 상처받은 광주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국

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개발을 약속한 땅”이라며 “지스트가 학사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힘을 보태 관련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배경을 통해 지스트가 오늘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호남의 대표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스트의 발전을 도모해온 지역사회에 보답하고 나아가 지역민 모두가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그려 가겠다는 복안이다.

나건호 기자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 전남대 ‘글로벌미래전략대학원’ 개설한다

### 9월 개원... 매년 50명 전문가 배출

전남대학교가 기후와 환경 등 글로벌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상생과 협력의 미래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래전략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전남대는 빠르면 오는 9월 ‘글로벌미래전략대학원’(글로벌대학원)을 개설하고 △에코·스마트·바이오 가치를 구현하는 창의적 인재 △전 지구적 의제 대응 혁신을 선도하는 진취적 인재 △글로벌 미래공동체를 진단하고 실천하는 열정적 인재를 매년 50명씩 배출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대학원은 이 같은 미래전략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정책, 사회정의와 인권정책, 국제개발협력, 지역

과학기술혁신정책, 스마트방재안전공학 등 전공으로 다섯 분야로 나누고, 에너지, 환경, 재난 등의 사회적 위기와 과학 혁신 분야에 대한 연구·응용에 나서면서, 학제간 주제와 연구 방법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데 주력하게 된다.

또 미래 전략과 사회 혁신의 과제 도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제안 등에 나서게 된다.

전남대 글로벌대학원은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학내 교내 인문학연구원과 5·18연구소는 물론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 전력거래소교육원,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폴란드 포즈난 경제경영대학, 중국 운주외과대, 몽골국립대, 베트남 바이오 클러스터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부에서 지역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 온 ESG위원회, 미래위원회, CNU한림원 학술연구위원회, 미래전략실, R&D전략실, 글로벌대외협력처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연구트랙 책임교수를 국가기관, 자자체, 교육청, 공·사기업, NGO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을 글로벌미래전략대학원 겸임교수로 초빙할 계획이다.

김병인 개원추진위원회 위원장(교학부총장)은 “현대 인류에게 ‘기후환경자원’, ‘생명과학기술’, ‘평화연대협력’은 보편적 가치이자 당연한 과제”라며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의 융·복합적 통섭을 통해 이 같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 동신대, 봉황면 대실마을 리빙랩 전국서 ‘각광’

### 태양광·풍력 발전기 에너지 자립

동신대학교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주시 봉황면 대실마을에 조성한 에너지프로슈머 리빙랩이 에너지산업의 산 교육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동신대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실마을 에너지 프로슈머 리빙랩에 초·중·고등학생 체험 학습 신청과 타 지역 주민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리빙랩 개설 이후 수많은 기관 단체의 방문과 문의가 이뤄진데 이어 올해는 리빙랩 마을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해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면서 체험학습 신청이 활발해지고 있다.

리빙랩 마을 체험프로그램은 3시간 일정과 2시간 일정 등 두 종류로 운영된다. 도슨트와 함께 리빙랩과 마을을 탐방하며

자립마을을 체험하고 피지컬 컴퓨팅으로 배우는 에너지순환 교육, 오픈 버스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산업 원리를 깨우친다.

지난달 20일 나주 매성중학교 재학생 30명이 체험 학습에 참여한 데 이어 이달에는 전남도 완도교육지원청과 영암고등학교의 참여가 예정돼 있다. 학생들은 코딩 교육, 정이십각형 풍력발전기 원리 교육, 태양광·풍력발전기·e-모빌리티 운송 기기를 관람하며 신재생 에너지 체험에 나선다. 지난 19일에는 경북 안동시 임화면 금소리마을 주민 67명이 대실마을을 방문해 에너지프로슈머 리빙랩 투어를 했다. 금소리마을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또다른 에너지 자립마을로 탈바꿈하기 위해 대실마을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인 기자

그린알로에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